

디지털 세상,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작가 에세이

장소영
수필가
광주문학회집위원



‘어라?’.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투입구가 사라졌다. 낯선 기기 앞에서 순간 어리둥절 두리번거리다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직원인 청년이 따라오더니 회원카드 발급요령을 알려준다. 일러주는 대로 신용카드를 넣고 적립식 회원카드를 발급해 돌아서는데 한 손에 여전히 쥐고 있는 동전이 무색해 보인다. 오늘따라 유난히 파닥이는 날갯짓으로 두 다리를 쭉욱 뻗진 채 날아오른 은빛 학이 목을 늘어 ‘끼룩~’ 서글픈 울음소리를 낸 것만 같다. 안 그래도 쓰임새가 줄었는데 이곳마저도 거부하니 그 마음이 오죽 할까 싶다.

세차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잔뜩 고개를 빼고 서성이는 노부부가 도움을 청한다. “내가 이거를 어찌 하는지 몰라서.. 겁나서 세차를 못 하겠네.” 저게 곧 닥칠 내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갑갑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어느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던 노인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복지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줄을 서서 돌아가며 기계를 마주하던 불안한 표정들. 음료 하나, 음식 하나 고르지 못해 지나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열쇠이었다. 실수도 하고 낙심도 하다 자신이 고른 음식을 가리고 성공을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파이팅을 외쳤더랬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태준의 ‘복덕방’이란 작품이 있다. 일제강점하의 근대화 물결 속에서 소외된 노인세대의 빈곤함과 좌절감을 세 노인을 통해 보여준다. 그들은 나이는 들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 하지만 결국 한 노

인의 자살로 끝나고 만다.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노인 세대가 겪는 경험은 지금도 같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인건비 절약이니 편리성이니 해서 음식점, 병원, 금융기관, 터미널 등 지역 사회 전반에 키오스크가 크게 늘었지만, 막상 이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젊은 층도 따라가기 바쁘다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노인세대야 말해 무엇하랴.

노인세대가 새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

“완벽하게 디지털 세상이 되면 사람간의 일상생활 속 교류마저 소멸될 것만 같은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우리도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일정기간 동행할 시간이 필요하다. 삶은 언제나 위험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먼저 산 사람에 대한 일말의 자비는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상이 디지털화되며 불편함을 넘어 소외되고 있다. 그동안 음식점만 하더라도 직접대면 하는 이모, 삼촌, 언니 등을 외치며 이용해 왔다. 지금은 매장 입구 키오스크를 넘어 테이블마다 설치된 패드형 키오스크로 호출, 주문은 물론 결제가 가능한 곳까지 있다. ‘뭘 먹을래? 옵션 추가할래? 이것도 주문하는 건 어때? 할인 카드 있어? 먹고 갈래? 포장이야? 결제는 무엇으로 할래? 영수증 필요해?’ 꼬부랑고개 넘어가듯 벽찬 요구에 노인들이 사용

하기엔 글씨도 작고, 어려운 영어 표기가 많다.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도입속도마저 너무 빠르다.

일본 여행 중 접했던 무인안내기는 주문시스템이 아닌 수금시스템으로 터치식보다는 버튼식이 많고 의외로 단순해 사용이 편했다. 자판기를 그냥 모니터로 옮긴 것과 같았다. 노인들뿐만 아니라 일이 모르는 외국인도 금방 사용하고 현금결제, 카드결제 다 되니 결제 후 교환권 종이를 카운터에 전달하면 되었다. 영국도 2005년 이전부터 키오스크를 도입했지만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결제. 현금 결제가 가능해서 잔돈처리하기도 좋았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두툼한 열쇠 꾸러미로 문을 열어야 한다. 노인 세대에 대한 배려로 디지털 속도를 조절하기에 기기의 변화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출입문조차도 디지털화 되어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 우리들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다.

그래선지 최근 발표한 ‘전 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라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진 않아 보인다. 완벽하게 디지털 세상이 되면 사람간의 일상생활 속 교류마저 소멸될 것만 같은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우리도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일정기간 동행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조차 현금, 카드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방향으로 나갔어야 하는 데 이런 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한다. 노인층의 구겨진 자존심과 열등의식은 스스로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문물 앞에서 사용처를 잃은 동전처럼 말이다.

삶은 언제나 위험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나 먼저 산 사람에 대한 일말의 자비는 베풀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슬프게도, 이 디지털 세상에 노인을 위한 대한민국은 없다.

기고 오훈철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고향사랑기부의 봄

누구에게나 삶의 안식처는 있다. 그 안식처는 고향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좋은 추억 중 많은 부분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추억이 아닐까.

고향은 이렇듯 어린 시절의 풋풋함과 수많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곳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고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 마음의 안식처, 고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

방법을 몰라 혹은 경제적 부담이 되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진 않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그 해답이 있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효과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에 이어 기부하면서 더 많은 기부를 받는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기부테크가 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기부를 받으니 동참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기부제는 10만원을 고향을 위해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니, 실질적으로 13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 이외의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한다.

또한, 기부액은 2025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를 기준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답례품의 경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를 통해 답례품을 받고, 그 답례품은 고향 특산물과 지역 생산 물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공제해 줄 세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깎아 주겠지만, 세액이 0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 원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를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를 선택한 후 기부액, 기부 일자, 답례품 제공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부 후 제공되는 30%의 포인트로 그 지역 특유의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등 답례품 주문이 가능하다.

온라인 기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5,900여개의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기부를 할 수 있다.

발언대

고한용
서부경찰 교통안전계장



봄 행락철 ‘교통안전’부터 준수

단보도에 접근할 땐 서행하며 경계를 기울이고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필수다. 장거리 운행 시 졸음쉼터 등을 이용한 휴식으로 졸음운전도 예방해야 한다.

보행자 역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47건)의 34%(16건)에 달했다.

보행자가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거나 모자를 쓴 상태로 보행하는 경우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광주경찰 또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광주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 무단횡단 금지시설 총 27.4km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81개소)·회전교차로(5개소) 등 보행자 보호 시설 설치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지

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명(17.5%) 감소한 4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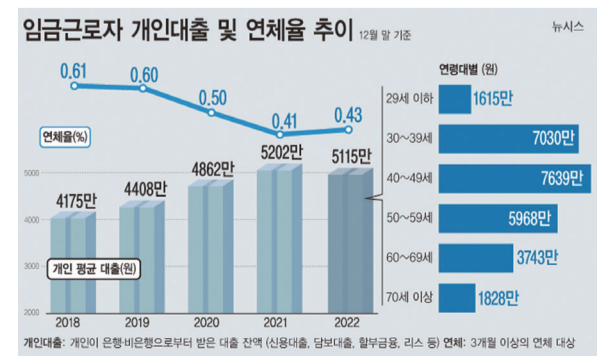
시민 체감안전도를 높이는 방안도 꾀하고 있다. 시민의견을 반영한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요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사항, 교통환경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면 된다. 경찰관서 방문은 물론 온라인 사이트(<https://naver.me/FawuAieh>)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락철 보행자 교통안전은 경찰과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봄은 ‘교통사고 없는’ 봄이 되길 바라며, 광주 지역 선진 교통질서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지안트 판다 푸바오가 3일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 상류국제공항에 도착해 있다. 푸바오는 지안트판다보전연구센터 워킹 선수핑 기지에서 한 달간 격리하며 중국 생활을 적응할 예정이다. **청두=신화/뉴시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